

비폭력만 강조했다면 불교 없어졌을 것

불교의 평화이념과 호국불교(끝)

평화를 선호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평화에 대한 접근법은 서론에서 제시한 전쟁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 즉 무력을 무력에 의해서 대처해야 한다는 현실주의적 접근법, 불의한 세력에 대하여 전쟁으로 대응한다는 정의의 전쟁론, 그리고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는 평화주의의 중에서 평화주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평화주의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폭력이나 전쟁관계가 아니라 평화적 관계가 되어야 하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이나 전쟁이 아니라 중재(arbitration), 항복(surrender) 또는 이주(移住) 등이 사용되어야 한다. 평화주의에는 국가는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는 정의의 전쟁이론(just war theory)에서부터 절대적 평화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평화주의는 의무론적으로도 결과론적으로도 평화가 도덕적으로 옳다는 입장이다. 의무론적 입장에서 볼 때 인간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침략이나 전쟁 행위를 피해야 할 절대적인 도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결과론적으로 침략적 행동이나 전쟁으로부터는 아무런 좋은 일이 나올 수 없으며 다수에게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므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평화주의는 ①전쟁의 절대적 금지, ②폭력의 절대적 금지, ③그리고 살생의 절대적 금지를 내세운다. 이 세 가지는 보통 중보되지만 대부분의 평화주의자들은 비폭력주의의 도덕적 원칙은 영원하고 불변하고 어떤 예외도 인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전쟁과 폭력은 항상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이다. 절대적 평화주의는 비폭력을 종교적 계율로 보는 종교적 관점과 연결되어 있다. 기독교의 경우에는 약에 대한 비저항의 이성이 연결되어 있고 힌두교의 경우에는 간디(Gandhi)의 비폭력주의, 그리고 불교에서는 불살생계에 연결되어 있다. 절대적 평화주의의 종교적 근거는 폭력에 대하여 보복 없이 폭력을 건디는 것이 가치 있다는 종교적 이념과 연결되어 있다.

조건적 또는 상대적 평화주의는 절대적 도덕 원칙이란 없다고 본다. 조건적 평화주의자들은 전쟁에는 도덕적 타당성이 없다고 보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한 기준 아래서는 무력이나 폭력의 사용이 도덕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재래식 무기의 사용은 인정하지만 핵무기의 사용은 반대하는 핵 평화주의자들도 있다. 조건적 평화주의자들 중에는 아인슈타

인과 리엘이 포함된다. 그들은 폭력과 전쟁을 비타협적으로 반대했지만 나치에 대한 전쟁을 지지했다. 평화주의가 전쟁에 개입할지의 여부는 전쟁의 성격에 달렸다는 견해이다.

불교의 평화주의는 모든 존재가 시간적 공간적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론의 관점에서, 그리고 불살생이라는 불교계율의 관점에서 비폭력과 불살생을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로 본다. 앞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본다면 소승 불교적 관점은 절대적 평화주의에 해당하고 대승적 관점은 조건적 평화주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소승적 관점인 절대적 평화주의의 문제점에 관해 논하고자 한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에 대한 반대자들은 우선 그들이 비겁하고 무임승차자이며 배신자라고 주장한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필요할 때 의무를 실현하고 죄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싸울 용기가 없는 비겁자이고 이기주의자라는 것이다. 반대자들의 눈에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군사력을 통해 생산되는 안보라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에 의해 보호를 받고 이익을 얻으면서 그런 공공재의 생산에 아무런 것도 하지 않는 무임승차자다.

반대자들은 또한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이 자기 손만 깨끗이 하려 하기 때문에 인생의 다른 요구들에 응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앞에서 인용한 막스 베버의 심정윤리에 대한 비판을 떠올리게 하는 비판이다. 평화주의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을 인간의 유일한 구원이라고 본다. 정의의 전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정당한 사회질서의 필요성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승불교는 원래 자기 자신의 구원을 우선시하고 계율에 경직되게 집착하는 기존 불교를 작은 수레를 타고 가는 소승이라 비판하고 자비심과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근본정신으로 돌아와서는 운동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파 불교가 일어나고 대승이 갈라지기 이전의 불교의 근본정신이 무엇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불교 경전 중에서 어느 것이 불교의 근본정신에 부합하는지는 불교의 기본철학에 비추어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불교의 근본정신이 이 세상에서 신이 아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우애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으로 본다면 불교는 절대적 계율주의나 율법주의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불교와 기독교 등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들은 공통적으로 자비와 사랑의 실현을 위해 율법주의, 계율주의에 구속받지 않는 자비와 사랑을 품소 실천해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조건적 평화주의에



일찍 평화와 반대되는 개념인 군대에 평화유지군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왜일까. 무고한 희생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 종교의 철학적 기반 제공에서 평화이념은 새로이 발전했다.

무조건적인 평화주의가

평화 가져올지는 의문

대승불교는 무고한 희생 막기 위한

방편적 폭력 허용했다

해당하는 대승불교의 평화이념이 불교의 근본정신에 가깝다고 본다. 절대적 평화주의에 가까운 소승불교의 평화이념은 앞에서 지적한 절대적 평화주의에 대한 반대론의 비판을 극복할 수 없을 것이다.

폭력과 전쟁에 반대하고 불살생의 계율을 가지고 있는 불교의 평화주의 이념은 불교의 분파에 따라서 그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비폭력과 불살생을 신봉하는 아함사를 절대적 도덕 원칙으로 삼는 쪽에서는 이를 절대적 원칙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대승불교와 여기서 파생된 호국불교에서는 아함사를 무조건 지켜야 할 규칙이라 보는 입장이 아니다. 비폭력과 불살생이 불교의 가르침의 중요한 원칙이지만 적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무고한 인생이 살육을 당할 때는 무기를 들고 적을 격퇴하

는 데 나설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중 하나는 중도(中道)이다. 오욕에 따라 제멋대로 하는 것은 하나의 극단이고 금욕주의 또는 고행은 다른 하나의 극단으로 불다가 피하라고 가르친 것이다. 불교의 아함사는 희생동물로 공양을 받도록 하는 브라만교의 교의와 아함사를 절대적으로 추구하는 자이나교의 교의 사이의 중도이다. 불교는 아함사를 불교의 중요한 가치로 정했지만 그것을 자비의 실현을 위한 방편으로 삼았다고 본다. 그것은 자비를 희생하면서까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계율이 아니다. 따라서 불교의 평화주의는 비폭력과 불살생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경직된 규칙이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소승적인 절대적 평화주의는 불교의 평화이념에 부합하지 않는다. 불교는 상대적, 또는 조건적 평화주의에 해당한다. 율법에 집착하지 않고 죄 없는 생명을 구하고 무법적인 침략에 맞서 중생을 구하기 위해서 무기를 들 필요가 있을 때는 무기를 들고 참혹한 살생을 저지하는 것은 불교의 평화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 소승적인 절대적 평화주의는 불교의 지비정신, 자리아타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이다. 아함사의 목적은 생명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 손과 자기 양심만 깨끗이 하기 위해서 무고한 인명이 살상을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절대적 평화주의자들은 국방이라는 공공재를 통해서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나라와 국민을 지킬 의무를 행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무임 승차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국의 호국불교는 불교의 평화이념에 충실히 따랐다고 본다. 호국불교는 전란의 시대에 일반인들을 세속오교로 인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이 무자비한 살육이 되지 않도록 했고, 아함사와 관련된 계율의 경직된 적용을 피함으로써 국가 민족을 구하는데 적지 않은 공헌을 했다. 한국의 호국불교는 또한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불교의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서양의 정의의 전쟁과 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았다. 고려 때는 승려들로 이루어진 함마군을 조직해서 싸웠고 조선에서 임진왜란 때 의승병들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무기를 들고 싸웠다. 그것은 각각 거란과 몽고의 침입으로 국토와 인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교가 비폭력과 불살생의 원칙을 절대적으로 적용했다면 동아시아 특히 우리나라에서 중세의 귀의 처로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 힘들다.



정권(서울디지털대 정치행정학과 교수)

마성 스님의 부처님이 말씀한 평화(끝)

열반의 동의어 우빠사마

삼(Sam)에서 파생된 ‘우빠사마(upasama, Sk. upasama)’에 대해 살펴보자. 이 단어는 산띠(santi)나 사마타(samatha)만큼 불교용으로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빨리 문헌에서는 자주 사용된다. 우빠사마는 적정(寂靜), 휴식(休息), 지식(止息) 등으로 번역된다. ‘고요함’이라는 뜻이다.

그 용례는 “여래는 이러한 두 가지 극단을 버리고 중도(中道)를 바로 깨달아 눈(眼)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적정(寂靜, upasama)·증지(證智, abhiññā)·정각(正覺, sambodha)·열반(涅槃, nibbāna)으로 이끈다”는 정형구(定型句)와 “이것은 ... 염리(厭離, nibbidā)·이탈(離貪, virāga)·멸(滅, nirodha)·적정·증지·정각·열반으로 이끄는” 등과 같은 정형구로 나타난다. 전자는 중도(中道)가 나타날 때의 정형구이고, 후자는 사성제(四聖諦) 혹은 팔정도(八正道)가 나타날 때의 정형구이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는 초기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설 혹은 수행도로서의 사성제 혹은 팔정도를 설할 때 주로 사용된다. ‘우빠사마’는 증지, 정각, 열반 혹은 염리, 이탈, 멸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물론 증지 이하의 말은 깨달음의 지혜 혹은 경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 가운데 열반이라는 단어도 포함돼 있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라는 단어는 산띠(santi) 혹은 산따(santa)의 구경적(究竟)인 열반과 동의어라는 것이다.

또한 이 단어는 우빠사마누삿띠(upasamānussati)라든가 우빠사마뎃타나(upasamādhīṭhāna)로도 쓰인다. 이를테면 upasamānussati(止息隨念)는 불수념(佛隨念, buddhānussati), 범수념(法隨念, dharmānussati), 승수념(僧隨念, saṅghānussati), 계수념(戒隨念, sīlānussati), 사수념(捨隨念, cāgānussati), 천수념(天隨念, devānussati), 안반념(安般念, ānāpānassati), 사념(死念, maraṇassati), 신지념(身至念, kāyagatāssati)과 같이 십수념(十隨念) 가운데 하나이다.

〈청정도론(淸淨道論)〉에서는 “고요함(upasama)에 대해서 일어난 계속해서 생각함이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이다. 모든 괴로움이 고요하게 가라앉음을 대상으로 한 염(念, sati)의 동의어이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모든 괴로움의 고요함(upasama)이라 불리는 열반의 덕들을 계속해서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처럼 우빠사마는 열반이나 무위(無爲, asaṅkhata), 불사(不死, amata)의 덕(德, gūṇa)과 대체된다. 따라서 십수념(十隨念) 중의 우빠사마도 열반이나 무위, 불사 등과 동의어로 구경적(究竟)을 의미한다.

우빠사마뎃타나(upasamādhīṭhāna, 止息確立)는 지혜의 확립(pañña-adhīṭhāna), 진리의 확립(sacca-adhīṭhāna), 버림의 확립(cāga-adhīṭhāna)과 같이 네 가지 확립 중의 하나이다.

〈맛지마 니까야〉에서는 “지혜의 확립은 모든 괴로움의 멸진(滅盡)에 있어서 지(智)이며, 진리의 확립은 최상의 성스러운 진리인 열반이며, 버림의 확립은 모든 의지처를 버림[捨離]이며, 우빠사마뎃타나(upasamādhīṭhāna)는 탐(貪)·진(瞋)·치(癡)의 적멸(寂滅, upasama)이다”고 설해져 있다. 이와 같이 우빠사마는 탐·진·치의 멸진(滅盡), 즉 모든 괴로움의 소멸, 열반 등과 같은 의미로 구경적(究竟)인 산띠(santi)를 나타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빠사마(upasama)라는 단어 자체가 단독으로 불교용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사성제나 팔정도라는 초기불교의 사상과 관련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의미하는 정형구로 사용됐다. 그래도 그 원래의 뜻은 상실되지 않고, 최고의 깨달음인 열반을 의미하며, 사성제나 팔정도 등 수습(修習)·증지(證智)에 의해 얻어지는 경지를 나타낸다.



마성 스님(팔리문헌연구소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번창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안출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더라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 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고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습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좋습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거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개소, 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방,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보험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점,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평생부자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사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 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사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 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 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2012년 나가는 삼재조심 쥐띠, 용띠, 원숭이띠

제일 힘든 나가는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0년 드는 삼재 2011년 묶는 삼재 2012년 나가는 삼재 용띠, 쥐띠, 원숭이띠 중생들은 2012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소머, 뱀띠, 닭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받고 삼재판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용띠, 쥐띠, 원숭이띠 생들은 나가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운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물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립니다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격: 45,000원 (사할스님 20%할인) 전화: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동협계좌: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